

## 接續副詞 研究(Ⅱ)

－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를 中心으로 －

金 美 先

(中央大 講師)

### 차 례

- |                     |                              |
|---------------------|------------------------------|
| 1. 序 論              | 3.3. ‘그러니까’의 意味              |
| 2. 形態分析             | 3.4. ‘그러므로’의 意味              |
| 3. 意味分析             | 3.5.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의 意味比較 |
| 3.1. ‘原因’과 ‘理由’의 意味 |                              |
| 3.2. ‘그래서’의 意味      | 4. 結 論                       |

### 1. 序 論

이 글은 接續副詞에 대한 研究의 일환으로, 因果關係를 나타내는 接續副詞의 形態의 特性과 文脈의 意味를 파악하는 데 目的이 있다.

因果關係란 하나가 다른 것의 原因이 되고, 그 다른 것은 하나의 結果가 되는 관계이다.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러느라고, 그러기에, 그러니, 그리하여, 따라서, 해서’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使用頻度가 높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의 形態를 分析하고, 辨別의 意味資質을 살펴보는 데 力點을 둔다.

이제까지의 접속부사 연구는 文文法의 틀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접속부사는 文과 文, 文脈과 文脈을 意味的으로 連結하는 機能을 하기 때문에 文을 最大의 分析單位로 하는 文文法 體系 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談話分析의 방법으로 접속부사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sup>1)</sup>

談話分析 方法은 특정한 文法模型이나 理論의 틀을 세우지 않고 실제로 사용된 言語資料를 研究對象으로 한다. 즉 談話의 分析, 특히 對話의 分析을 통해 經驗的 研究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本稿에서도 실제 담화에 쓰인 예를 중심으로 접속부사의 文脈的 意味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口語體 資料로 토크 쇼 '10시 임성훈입니다. -특집 대선 후보와 함께-'(1997년 8월 4일·5일 방영분), 對談 프로그램 '여기는 정보 센터입니다'를 分析하였고, 文語體 資料로 단편 소설집 '오늘의 소설'(1995년 하반기·1996년 상반기)과 '이상 문학상 수상 작품집'(1996·1997), 그리고 新聞 廣告文을 分析하였다.

## 2. 形態分析

국어의 接續副詞는 '그러하다'<sup>2)</sup>의 活用形이 굳어져 派生된 單語들이다. 代用語 '그러하다'의 '하'가 脫落되면서 敘述性을 잃고 語彙化한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因果關係 접속부사는 다음과 같이 形態素 分析을 할 수 있다.

- (1) ㄱ. 그래서 :  $\left[ \begin{array}{l} \text{그리} + \text{하} + \text{여서(아서)} \\ \text{그리} + \text{하} + \text{여서(아서)}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그리해서} \\ \text{그리해서} \end{array} \right] \rightarrow \text{그래서}$   
 ㄴ. 그러니까 :  $\text{그리} + \text{하} + \text{니까} \rightarrow \text{그러니까}$   
 ㄷ. 그러므로 :  $\text{그리} + \text{하} + \text{므로} \rightarrow \text{그러므로}$

이상의 분석을 볼 때, 接續副詞의 意味는 活用語尾의 意味에서 派生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접속부사의 의미는 連結語尾의 意味分析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는 그러한 단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 
- 1) '문 상위 단위'(unit beyond the sentence)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單位를 text(Halliday & Hasan 1976:1)라고도 하고, discourse(A.J.Greimas and J.Courtés 1982:340)라고도 한다. text는 일반적으로 文語體와 관계가 있고, discourse는 口語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구별하여 쓰이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같은 概念으로 사용한다.  
 2) 김일웅(1982:77)에서는 대응하고 있는 先行語의 중심어(head)인 서술어가 動作性을 가질 때에는 '그러하다', 狀態性을 가질 때에는 '그리하다'가 쓰인다고 하였다.

- (2) ㄱ.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매미를 잡았다.  
 ㄴ. 새벽 2시가 되어서 일이 마무리 되었다.  
 ㄷ. 발이 아팠서 구두를 바꿔 신었다.

위의 예처럼 連結語尾 ‘-어서’는 ‘繼起, 때, 原因’ 등의 意味로 파악된다. 連結語尾로 이어진 文은 다시 두 개의 단문으로 나누어 接續副詞로 連結시킬 수 있다고 보아, 위 문장들을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다.

- (3) ㄱ.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리고 나서(?그래서) 매미를 잡았다.  
 ㄴ. 새벽 2시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그래서) 일이 마무리 되었다.  
 ㄷ. 발이 아팠다. 그래서 구두를 바꿔 신었다.

위의 예로 볼 때, 接續副詞의 意味를 단지 連結語尾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 연결어미 ‘-어서’가 접속부사 ‘그래서’로 바뀌면 본래 가지고 있던 다양한 意味 대신에 ‘原因’의 意味로만 한정되어 文脈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된다. 形態上으로 分析하면 접속부사가 活用語尾의 化石形이지만, 語尾의 體系와는 달리 접속부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意味分化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3. 意味分析

그 동안 因果關係를 나타내는 連結語尾 ‘어서, 니까, 므로’에 대한 논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활발히 진행되었다.<sup>3)</sup> 그러나 상대적으로 接續副詞에 대한 研究는 아주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接續副詞의 意味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連結語尾의 意味에 의존해 피상적으로 분석하는 수준이었다. 물론, 接續副詞가 用言의 活用形이 굳어져 형성되었기 때문에 活用語尾의 意味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 語尾의 체계와는 다른 접속부사만의 意味體系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接續副詞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의 개별 의미를 살펴보고 공통 의미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특히 連結語尾 ‘어서’와 ‘니까’에 대한 논의가 많다.

### 3.1. '原因'과 '理由'의 意味

그 동안 논의되었던 連結語尾 '-어서, -니까, -므로'에 대한 意味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기심(1978)에서는 '-어서'는 "어떤 결과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원인'을 나타내고", '-니까'는 "말하는 이 개인의 推理作用에 의한, 듣는 이가 동의할 것으로 반드시 전제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이 아닐 수도 있는 '이유'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 김승곤(1978)에서는 '-아서'를 "전제적(비지정적)인 原因과 理由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니까'는 "결과적 원인 및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보고, '-므로'를 "論理的인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보았다. 그리고 성낙수(1979)는 '-어서'는 "개연적 동기 유발(problematic motive), 즉 개연적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니까'는 "필연적 동기 유발(apodictic motive), 즉 필연적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하였다. 이상복(1981)은 '-아서'는 "후행절의 행위나 상태가 이루어지는(또는 이루어진) 상태를 보이고, '-니까'는 話者の 推定에 의한 이유(원인)와 당연한 결과를 나타내고, '-므로'는 "전제가 되는 事實과 그로부터 이끌어 낸 結論을 연결해 주는 연결어미"라고 하였다. 또한, 남기심·루코프(1983)에서는 '따짐'이란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설명하여 믿게 하거나 어떤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며, '원인 밝힘'이란 단순히 어떤 情報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하면서 '-아서' 구문은 '원인 밝힘', '-니까' 구문은 '따짐'의 논리적 형식이라고 주장하였다. 최재희(1989:99)에서는 '-아서'가 보편적 推論의 결과를 나타내며 원인을 제시한다고 보고, '-니까'의 경우처럼 聽者와의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話者 자신의 의사를 진술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장경희(1993:195)에서는 '-아서'가 [+법칙성], [+계기성], [+인과성]의 意味資質을 지닌다고 하였으며, '-니까'는 [+조건], [+사실성]의 자질을 지닌다고 分析하였다.

그런데 위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原因과 理由의 概念이 제대로 구별되지 않은 채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원인·이유'처럼 '원인'과 '이유'를 함께 쓰기도 하고, '원인'만 쓰든지 '이유'만 쓰든지 하고 있는데, '원인'과 '이유'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소홀히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原因'과 '理由'의 意味를 정리하면서,<sup>4)</sup> 이것이 連結語尾 '-어서'와 '-니까'의 意味辨別에 어떻게 관계하는

4) 사전(이희승, 1976)에 따르면, '原因'은 '어떤 결과를 規定하면서 시간적으로 그것에 앞서는 상태'이고, '理由'는 '추리상 결론 또는 歸結의 전제가 되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接續副詞의 意味把握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 보겠다.

김태옥·이현호 역(1991: 7)에서는 因果關係는 '하나의 상황이나 사상(事象: event)이 어떤 다른 상황이나 사상의 조건들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관여한다고 하면서, 원인(cause), 실행 가능화(enablement), 이유(reason)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원인'은 先行文章이 後行文章에 대해서 필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경우, 즉 필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실행 가능화'는 선행 문장이 후행 문장에 대해 充分條件을 만들어 주는 경우로, 전자가 후자를 가능하게는 하였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유'는 '하나의 行爲가 선행하는 어떤 事象에 대해서 합리적인 반응으로서 따라 나오는 경우'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서정수(1996: 1271)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原因과 理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도 포괄적으로 '까닭 접속소'라는 용어를 썼다.

原因(cause) : 대체로 結果를 일으킨 요인으로서 그 결과와 필연적 관계를 가진 것이다. 결과나 산물, 행위의 결과나 상태를 일으킨 사람, 事物 또는 條件 따위를 가리킨다. 고장의 원인, 사고의 원인, 패망의 원인, 질병의 원인, 난폭 행위의 원인 따위로 인과관계(因果關係 cause and effect)를 말할 때 흔히 쓰인다.

理由(reason) : 수행할 행위의 動機, 믿음이나 주장의 근거, 추론/추정의 전제나 근거, 說明이나 논리적 방어의 합당한 근거, 행위나 과정의 正當化 설명이나 따짐을 위한 근거 따위이다. 믿지 않는 이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남을 사랑해야 할 이유, 공부를 하는 이유 따위로 쓰인다.

이렇게 보면, '原因'은 '結果에 영향을 미친 必然的인 要因', '理由'는 '結論에 대한 推論의 根據'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윤평현(1989: 118)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데, '-니까'는 '話者의 個人的인 사리 판단을 배경으로 하는 이유'를 나타내고, '-어서'는 '話者의 一般的인 상식을 배경으로 하는 원인 발힘'이라고 하여 '-니까'를 '이유'의 連結語尾로, '-어서'를 '원인'의 連結語尾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다음 文章에서처럼 '원인'의 연결어미와 '이유'의 연결어미로 斷定짓기는 어렵다.

---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原因은 결과에 맞서는 概念으로, 이유는 귀결에 맞서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 (4) ㄱ. 눈이 녹아서 길이 미끄럽다.  
 ㄴ. 눈이 녹으니까 길이 미끄럽다.

눈이 녹으면 길이 미끄럽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話者의 개인적 사리 판단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4, ㄴ)처럼 쓰였다. 接續副詞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은 '原因'단, 어떤 것은 '理由'만을 나타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文脈에 따라 意味把握이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sup>5)</sup>

그래서 이 글에서는 '-어서'와 '-니까'의 意味差異를 '原因'과 '理由'로 보지 않고, 그 차이를 '-니까'가 지니는 '說明'의 意味에 두고자 한다. (4, ㄱ)은 '눈이 녹는다'는 사실과 '길이 미끄럽다'를 事實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는 데 비해, (4, ㄴ)은 說明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간접적으로 이어주고 있다.<sup>6)</sup>

### 3.2. '그래서'의 意味

'그래서'의 경우는 連結語尾 '-어서'의 基本意味라 할 수 있는 '원인·이유'의 意味로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ㄱ. 물은 화려하고 값비싼 외장으로 걸러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필터로 걸러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타 정수기는 과감하게 불필요한 외장을 버렸습니다.(정수기 광고)  
 ㄴ. 나는 어려서 무서움을 잘 탔다. 그래서 늘 머리맡에다 안테르센의 동화에 나오는 주석으로 만든 용감한 병정들을 늘어놓고야 잠이 들었다.(피천득, 인연 : 69)  
 ㄷ. 목격자, 그래요, 저는 한 여인의 죽음의 목격자였죠. 그래서 여러 차례 그 여인의 삶에 대해 증언해야 했습니다.(김형경, 담배 피우는 여자 : 192)  
 ㄹ. 자동차는 인간의 생명을 싣고 달리기에 사소한 실수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00여 대의 로봇이 한 치의 오차 없이 만듭니다.(자동차 광고)

5) 어느 접속부사가 '原因'의 뜻으로 많이 쓰이는지, 또는 '理由'의 뜻으로 많이 쓰이는지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6) 接續副詞 '그러니까'의 의미 파악과도 관련이 된다.

‘그래서’는 文脈에서와 마찬가지로 談話에서도 주로 ‘원인·이유’의 의미로 쓰이지만, 때로는 다른 용법으로 쓰이기도 한다.

- (6) ㄱ. 제가 산 섬은 갯벌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낚시일도 하고, 또 이제 낙지 잡아 가지고 물에 씻어서 거기서 뜯어먹기도 하고... (「10시 임성훈입니다」)
- ㄴ. 원래 이제 제가 외모에 아주 신경을 안 쓰는 편이고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이 정치 토론 뒤에 안 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도 가다듬고 합니다. (「10시 임성훈입니다」)
- ㄷ. 청소년 시절은 왜 제가 활발하다는 얘기를 하나면 아무래도 청소년기는 사춘기이기 때문에 첫사랑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가슴 설레었던 그런 순간들이 참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번 여쭙 보겠습니다. 혹시 마음 속으로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느꼈던 첫사랑이 있으셨습니까? (「10시 임성훈입니다」)
- ㄹ. 피아노 집에서 쓰러졌거든요. 연습을 너무 한 거죠. 그치만요, 난요, 그 애한테, 맛있는 내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 ……그래서, 어떻게 됐니? (「연못」 151)
- ㅁ.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조그마한 애기 사진이에요. 그게 둘째 놈인터 그걸 보더니 니들이 무슨 죄가 있네 그래요. 결혼시키시다. 그러더군요. 그리고 그 둘째 놈을 5개월 된 놈을 할머니가 데려다 키웠어요. 정을 흠뻑 쏟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10시 임성훈입니다」)

위의 (6, ㄱ)과 (6, ㄴ)은 ‘理由’의 意味로, (6, ㄷ)은 ‘轉換’의 意味로 쓰인 것이며, (6, ㄹ)은 말을 재촉할 때 쓰이는 表現이다. 그리고 (6, ㅁ)은 問投詞처럼 쓰인 예이다. 위의 예(6, ㄷ)에서처럼 談話 중간에 말을 轉換시키는 의미로 ‘그래서’를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말인데’의 형식을 갖추는 경우가 많다. 接續副詞 ‘그런데’에 비해서는 자주 쓰이지 않지만 대부분의 접속부사는 ‘轉換’의 意味로 사용되기도 한다.<sup>7)</sup> 또한 (6, ㅁ)처럼 話者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이 얼른 나오

7) 안주호(1992:33)에서는 轉換表識로서 ‘그’계열의 連結詞를 화제 이탈성을 기준으로 A그룹부터 F그룹으로 나누었다. A그룹의 것들이 전 화제와 일관성의 경향이 가장 짙은 것이고 B가 다음이고 F는 전 화제와 아주 다른 것으로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이라 한다. A는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 그러니까’, B는

지 않을 때 의미없이 쓰는 間投詞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이것도 대다수의 接續副詞가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 그것은 談話를 논리적으로 連結하여 지속시키려는 화자의 심리 상태에 따른 표현이라고 보인다.

### 3.3. '그러니까'의 意味

- (7) ㄱ. 먹이가 부족하니까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으니까 별로 움직이려 하지도 않고, 제을러지고, 움직임도 굵뜨다. 그러니까 번식이 힘들다. 그리하여, 그 문제를 심해어들은 암놈과 수놈이 함께 붙어 사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수놈이 암놈에게 기생하는 것으로 적응하여 해결한 셈이다. (심해 258)
- ㄴ. 넓은 발이 있었습니다. 발의 가장자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눈 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발뿐인, 그런 발이었습니다. (김형경, 단배 피우는 여자 : 157)
- ㄷ. 그렇다. 그 옛날 우리 집에는 조부를 따라 들어온 말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분가를 하기 바로 한 해 전이니 1968년이 아년가 싶다. (윤대녕, 말발굽 소리를 듣는다 : 73)

위의 예 (7, ㄱ)처럼 接續副詞 '그러니까'는 '原因'의 意味로도 볼 수 있지만, (7, ㄴ), (7, ㄷ)처럼 '說明'의 意味로 파악되는 경우도 많다. '다시 말하면' 또는 '數衍하면'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다.

談話에서도 文脈에서와 같은 意味를 추출해 낼 수 있다. 그런데 談話에서는 '원인'의 의미보다는 '說明'의 意味로 많이 쓰인다. 連結語尾 '-니까'가 '원인·이유'의 의미 외에 '설명'의 의미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도 '원인·이유'의 의미 외에 '설명'의 의미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쓰인다.

- (8) ㄱ. 화면에 보면은 아주 사정없이 60 자가 나와서 초가 흘러가는데 10초가 되면은 듣기 싫은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시 임성훈입니다.')
- ㄴ. "아네요, 무슨 말인지 알 듯도 한데요. 뭐."

'그러나, 그렇지만', C는 '그러면, 그럼', D는 '그래', E는 '그런데, 근데', F는 '그나저나, 그건 그렇구'로 나누었다. 따라서 A그룹에 속하는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 그러니까'보다 E그룹과 F그룹에 속하는 接續副詞가 '전환'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그러니까 모를 듯도 하다는 말이군요.” (재망매 45)

- ㄷ. 동네 병원 같은 경우 뭐- 요즘 겨울이 다 돼 가니까 감기나 뭐- 계절이 바뀌는 데서 오는 가벼운 병들은 좀 가까운 곳을 많이 이용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큰 병원 그러니까 뭐- 교통 사고나 이렇게 큰 질환에 있어서 큰 병원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는 라디오 정보센터입니다」)
- ㄹ. A: 남편으로서 그만한 점수는 받을 만하시기 때문어요.  
B: 아,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이 여자를 즐겁게 해 주시는 모양이지요? (「10시 임성훈입니다」)

(8, ㄱ)의 경우에는 ‘理由’의 意味로 쓰였고, (8, ㄴ)은 ‘다시 말해서’의 意味로 쓰이고 있는데, 자세하고 구체적인 說明을 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그리고 (8, ㄷ)은 間投詞로서 쓰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接續副詞가 間投詞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특히 ‘그러니까’는 자주 사용된다. (8, ㄹ)과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받을 때 자주 사용되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는 데 쓰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3.4. ‘그러므로’의 意味

‘그러므로’는 앞의 다른 接續副詞와는 달리 주로 ‘原因·理由’의 意味에 限定해서 쓰인다.

- (9) ㄱ. 아기가 질병을 문 채로 잠을 자면 치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유식은 떼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신문 광고)
- ㄴ. 각 나라의 입장으로 보면 어느 전쟁이든 정당한 전쟁이며 어느 나라나 신이 있다. 그러므로 하느님 보고 이기게 해 달라고 빈다던 하느님은 어느 나라 기도를 들어줘야 하겠는가. (「지나갈 어느 날」)
- ㄷ. 아기 키우는 데는 연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아식은 아기 과학에 대한 축적된 연구 업적을 갖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문 광고)
- ㄹ. 21세기는 많은 인구나 자하 자원보다 사람의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국제 경쟁력이 되는 시대. 그러므로 ‘앞으로 세계의 중심은 한국이 된다’라는 말이 그리 과장된 표현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

로부터 '창의의 나라'하면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신문 광고)

이상복(1981:18)에서는 前提와 結論을 연결해 주는 경우에 '-므로'만이 자연스럽게 쓰인다는 사실을 통해서 '-므로'의 先行節의 내용은 後行節의 전제<sup>8)</sup>가 되고, 후행절은 그러한 전제를 기초로 하여 이끌어 낸 결론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接續副詞에서도 마찬가지로 先行文은 後行文에 대해 前提가 되고, 後行文은 前提에 대한 結論이 된다.

'그러므로'의 경우는 連結語尾 '-므로'가 談話에서 잘 쓰이지 않는 것처럼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간혹 談話에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文字로 된 原稿文을 音聲으로 表現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談話라고 할 수 없다.

### 3.5.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의 意味比較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모두 因果關係를 나타내는 接續副詞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 쓰임에 있어서는 약간씩 差異點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 單語의 사용례를 비교 분석하여 그 意味를 辨別해 보고자 한다. 그 동안 統辭的 制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지만, 접속부사의 意味에 대한 研究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sup>8)</sup>

(10) ㄱ. 집터가 다른 집들보다 약간 낮아 피아노집은 오목하게 들어가 앉아 있었다. 그래서 여관의 유도화인 줄 알았던 모양이다.(깊은 숨을 쉴 때마다)

ㄴ. 글썄 학부모들이 쓰는 과외비가 나라 지키는 데 드는 국방비보다 많다지 뭐예요. 그러니까 애들 성적 절반은 결국 부모가 만들어 주는 거라구요.(아우의 인상화)

ㄷ. 헤엄치기를 배운다는 것은 가엾게는 코에 물이 들어가고 귀에 물이

8) 조오현(1994)에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接續代用語의 문맥상의 제약'이라 하여 '그래서'는 '약속, 꾀임, 시킨의 理由代用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러니까'는 '의항법제약은 없으나 연표내적 행위와 관련된 작정, 단언과 표명형, 선언형에는 쓰이지 않으며, 뒤 월의 임자말은 1인칭을 제약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므로'는 '단언, 예언 등의 理由를 代用할 때 쓰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들어갈 가능성, 무접계는 익사할 가능성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럴 가능성을 직면하지 않고는 결코 헤엄치기는 배울 수 없다. (나비 벡타이)

(10)에서와 같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모두 先行文과 後行文의 의미 관계가 因果的 關係로 해석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先行文은 後行文의 原因이나 理由가 되고, 後行文은 先行文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위의 例文에서 ‘그래서’와 ‘그러니까, 그러므로’의 意味差異를 발견할 수 있다. 즉 (10, ㄱ)의 ‘그래서’는 先行文에 話題의 焦點을 두고 있고, (10, ㄴ)과 (10, ㄷ)의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後行文에 話題의 焦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前者는 原因·理由에 焦點을 둔 것이고, 後者는 結果에 焦點을 두고 敘述하고 있다.<sup>9)</sup>

(11) ㄱ. 어머니에게 버젓한 가정이란 그토록 절대적이고 간절한 소원이었을까. 그래서(?그러니까/?그러므로) 하루 아침에 느닷없이 배반해 버린 아들이 미워서 스스로 그렇게 허물어지고야 만 것일까. (아우의 인상화)

ㄴ. 그 때 콘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어 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먹어 본 콘아이스크림에 대한 기억은, 그 맛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그래서/그러므로)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콘아이스크림의 맛은 어쩌면 단순히 미각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제망매)

ㄷ. 사람의 상상력이, 쥐가 쥐구멍에서 직립한 채로 뒷집지로 나오는 것까지 상상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그래서/그러니까), 김포 공항 출구를 통하여 에이브러햄 링컨 씨가 핫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 차림으로 나오는 모습을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은 내 상상력의 가난을 비난하지 못한다. (나비 벡타이)

위의 예에서 ‘그러니까’와 ‘그러므로’는 서로 交替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래서’와 ‘그러니까, 그러므로’의 交替는 어색하다. 신현숙(1989 : 443-448)에서

9) 韓英辭典의 풀이를 살펴보면, ‘그래서’는 thereupon(그런 까닭에),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consequently(그 결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는 [거리]라는 의미 자질을 기준으로 ‘그래서’와 ‘그러니까’의 意味를 辨別하였다. 즉, 표지의 형식이 길면 길수록 [거리]가 느껴지고, 짧으면 짧을수록 [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래서’가 ‘그러니까’에 비해 [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여 [-거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거리]에 의한 차이보다는 [설명]의 의미 때문에 변별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본다.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2) ㄱ. 아내가 본 사람이 형사가 맞다면 정말 현욱은 주사파란 말인가. 그래서 우리집은 다시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인가. (아우의 인상화)  
 ㄴ. 아내가 본 사람이 형사가 맞다면 정말 현욱은 주사파란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집은 다시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인가. (아우의 인상화)

위의 예에서 (12, ㄱ)은 ‘현욱이 주사파라서 집이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는 原因을 밝히는 뜻이고, (12, ㄴ)은 ‘결국 우리 집이 다시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뜻으로 파악된다. ‘그러니까’가 ‘說明’의 뜻을 나타내는 예는 文과 文 사이에서보다는 句節 사이에서 많이 나타난다.

- (13) ㄱ. 그 아이는 어쩌면 나의 일탈을 조금은 부러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면 그 아이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그러니까, 조숙하게, 사려 깊었는지. (재망매)  
 ㄴ. 수미가 가출한 것은 작년,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였다. (深海에서)

위에 나타난 ‘그러니까’는 ‘數衍하면’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원인’의 의미는 전혀 없이 앞 말의 數衍說明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句節 사이에서만 아니라 文 사이에서도 쓰인다.

‘그러니까’와 ‘그러므로’의 意味辨別은 論理性에서 찾을 수 있겠다. 接續副詞의 대부분이 論理的 連結語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특히 ‘그러므로’ 같은 경우는 論理的 性格이 강하기 때문에 三段論法과 같은 推論方式에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 (14) ㄱ.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 ㄴ. 나는 독서실에서만은 중학생이 아니었다. 그 따위는 벌써 졸업했다.  
다시 그 곳에 돌아갈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어느날 새벽 세 시에  
내가 독서실의 옥상으로 가지 않았다면 나는 여름 방학내내 너를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성석제, 첫사랑 : 208)

따라서 '그러므로'는 口語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文語體에서만 쓰이는 接續副詞라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口語體 資料에서는 '그래서'가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 4. 結 論

이 글에서는 接續副詞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의 形態的 特性과 意味機能을 살펴보았다. 資料가 충분하지 못하여 논의의 출발부터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나,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하면 深化된 研究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內容을 要約하고자 한다.

1.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주로 因果關係를 나타내는데 쓰인다. 그러나 '그래서'는 先行文에 話題의 焦點을 두어 原因・理由를 밝히는데 비해서,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後行文에 話題의 焦點을 두고 結果를 밝히는 데 쓰인다.
2. '그래서'와 '그러니까'는 '說明'의 意味를 가지고 있으나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그래서'에 비해 '그러니까'는 [+說明]의 資質을 가지고 있다.
3. '그래서'가 口語體에서 자주 사용됨에 비해 '그러므로'가 文語體에만 사용되는 것은 '그러므로'가 論理的 性格이 강한 데에 그 原因이 있다. 또한 '그러니까'는 '원인'의 의미보다는 '說明'의 意味를 바탕으로 '다시 말하면', '敷衍하면'과 같은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參 考 文 獻 ◇

- 김승곤(1978), 연결어미 「-니까」, 「-아서」, 「-므로」, 「-매」의 발쓰임에 대하여,  
인문과학논총 11, 건국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 김일웅(1982), 우리말 대용어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남기심(1978), '아서'의 화용론, 말10,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남기심·루코프(1983), '-니까' 구문과 '-어서' 구문, 국어의 통사·의미론, 탑출판사.
- 노석기(1987), 국어 담화의 엮음관계 연구, 外大論叢 第5輯.
- 徐泰龍(1987), 國語活用語尾의 形態와 意味,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성낙수(1978),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문 연구, 한글 162.
- 신현숙(1989), 담화대용표지의 의미 연구 : '그래서/그러니까/그러나/그렇지만'  
을 대상으로, 국어학 19, 국어학회.
- 柳穆相(1970), 접속어에 대한 고찰, 한글 146호, 한글학회.
- \_\_\_\_\_(1990), 韓國語文法 理論, 一潮閣.
- \_\_\_\_\_(1993), 韓國語文法の 理解, 一潮閣.
- 안주호(1992), 한국어 담화표지 분석, 말 17,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윤평현(1986), 이유·원인 연결어미에 대한 연구, 어문논총 제9호, 전남대학교.
- \_\_\_\_\_(1989), 국어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상복(1981), 연결어미 '-아서', '-니까', '-느라고', '-므로'에 대하여, 배달말 5.
- 이은경(1994), 텍스트에서의 접속어미의 기능, 텍스트언어학2, 도서출판 박이정.
- 이은희(1993), 접속관계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오현(1990), 현대 국어의 이유 구문에 관한 고찰,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1994), 이유의 접속대용어 연구, 전국어문학 제19·20집 합집, 건국대학교.
- 최재희(1989), 국어 접속문의 구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